

[바둑]

무자년 반상 “내가 王”

무자년 2008년 바둑계는 이세돌(24)·이창호(34)·박영훈(24) 9단이 펼치는 3강 대결로 더욱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세돌은 셋 중 가장 기세가 좋다. 지난해 윤준상을 상대로 국수 타이틀을 따내 통산 11번째 국수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바둑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만도 6개.

제5기 전자랜드배 백호왕전에서 신년에만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창호의 강력한 도전도 예상된다. 이창호는 이세돌-박영훈으로 굳어가는 바둑 판세에 파문을 일으킬 태세다.

스타일 면에서도 셋은 다르다. 이세돌은 무시무시한 공격력, 박영훈은 중반에 힘을 발휘하는 끈기, 이창호는 뛰어난 계산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바둑을 둔다.

이들 3강이 벌인 경정과 우승 행진이 올해 바둑계 최고 키워드다.

새해 벽두부터 이세돌은 LG배와 삼성화재배 등 세계 기전 결승에 연속 출전한다. 기성전서도 도전자 선발 토너 4강까지 진출했다. 모두 우승하면 상반기 내에 9관왕에 등극해

바둑계를 평정할 수 있다. 이세돌의 거침없는 행보에 첫 도전장을 내민 것은 랭킹 3위 박영훈.

오는 21일 제12회 삼성화재배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박영훈이 이기면 기록 면에서 이세돌과 양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박영훈은 1개(후지쓰배)의 세계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세돌 국내 랭킹 1위 여세 몰아 9관왕 야심 이창호 전자랜드배 4연승 부진 탈출 청신호 박영훈 작년 3관왕 “이세돌 천적 바로 나”

박영훈은 이세돌과 23번을 겨뤘 10승13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2006년 이후 이세돌에게 1승5패로 열세였지만 지난 연말에 3연승을 달리며 거침없는 이세돌의 집주에 발목을 잡을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이세돌 9단을 겁나게 하겠습니다” 이창호가 지난 4일 열린 2007년 바둑대상 시



〈이세돌 9단〉



〈이창호 9단〉



〈박영훈 9단〉

상식에서 단진 ‘깜짝 선전 포고’다. 이창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세돌에게 최우수 기사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바둑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5년 연속 네티즌이 뽑은 최고 인기 기사로 선정됐다. 그만큼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호는 지난해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왕

위 12연패, 중환배 및 바둑왕전 우승으로 조용히 재기를 다졌다. 그동안 이창호는 이세돌과 43번을 맞붙어 이창호가 24승을 챙겼지만 2006년 이후 7번 만나 2번 이기고 5관왕 내렸다. 이창호가 공개적으로 도발한 상대인 만큼 올해 이들이 다시 맞붙는다면 가장 뜨거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훈-이창호의 힘겨루기도 불만하다. 지난해 2승1패로 박영훈이 다소 앞섰지만 통산 전적에선 7승 11패로 뒤져있다. 2006년 이후에만 보면 이창호가 4승3패로 우세하다. 특히 후지쓰배 결승은 박영훈이 가져갔다. 박영훈은 이창호와 큰 판에서 맞붙으면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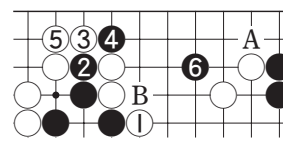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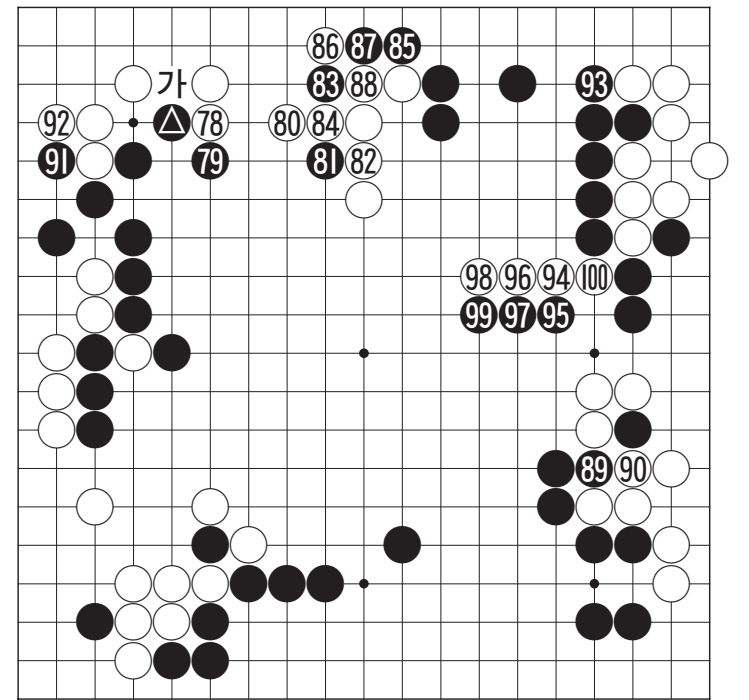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제5회 KBC시상배
중고등부
결승전

대성공한 응수 타진
5보(78~100)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참고도〉

흑 ▲가 따끔한 응수타진으로 강지수군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수였다.

이때 김근홍군은 기세로 78로 밀고 올라왔는데 이 수로는 '가'로 이어 잡아야 했다. 다시 흑이 79로 짓혀오자 김근홍군이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린다.

백 78로 밀어올릴 때는 '참고도'의 1로 제차 짓힐 생각이었던 것. 그러나 흑이 2로 뚫고 4로 끊은 다음 6으로 쳐들어 가면 'A'로 넘는 수와 'B'로 끊는 수가 맞보기가 되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백 80으로 후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기세가 오른 강지수군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제차 81로 들여다 봤는데, 이 수가 또 좋은 수였다. 백은 82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83으로 치중하는 수가 성립되었다.

흑 85로 넘어서는 흑의 대성공이다. 79까지 두터움도 없고 87로 실리도 빼앗고 있다.

백 86으로 87에 잡히지 못하는 것도 빼아프다. 흑으로부터 여전히 '가'로 뚫리는 뒷맛이 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김근홍군은 분을 삭이며 지나가는 길에 94로 들여다 보았으나 강지수군이 또 99까지 몰고 들어간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2007년 MVP’ 이세돌...상금 수입 6억 1위

이창호·박지은 5년연속 인기상 목진석 다승상...한상훈 신인상

‘센돌’ 이세돌 9단이 한국 바둑계 최고의 별로 등극했다. 11일 한국기원은 “이세돌이 지난 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7 바둑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요타렌소배 및 TV아시아선수권 등 2개의 세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돌은 지난해 5억9천여만 원의 수입으로 상금 랭킹도 1위인 최고의 프로기사다.

바둑대상 최우수기사는 바둑 기자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투표로 결정되며,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기사가 우수기사로 선정된다. 이번 투표에서 이세돌 9단은 총 45표 중 34표를 얻었다.

팬들이 직접 뽑는 최고 인기기사상에는 이창호 9단, 박지은 8단이 각각 5년 연속 선정됐다. 한국기원과 사이버오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된 인기투표에는 총 2만4천85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가했다.

지난 해 왕위전 12연패, 중환배 우승 등의 성적을 거둔 이창호가 지난해 최고의 한해를 보낸 이세돌을 따돌려 여전히 최고의 인기 기사임을 과시했다.

인기도는 이세돌(5천672표·23.5%), 최철한 9단(2천280·9.5%), 조훈현 9단(1천655·6.9%), 유



오른쪽부터 2007 바둑대상 시상식에서 다승상을 받은 목진석, 최우수기사 이세돌, 인기상 이창호, 신예기사상 한상훈, 인기상 박지은. (사이버오로 제공)

창혁 9단(4.1%) 순이었다. 신예기사상은 한상훈 2단.

기록부에서는 목진석 9단이 지난해 93승 29패의 성적을 거두며 역대 연간 최다승, 최다 대국수 기록을 갈아치워 다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4연승을 거둔 것을 포함해

81승 23패(승률78%)를 거둔 이세돌은 연승상, 승률상을 휩쓸었다.

아마기사상에는 지난해 삼성화재배 아마에선 우승, 국무총리배 우승, 이창호배 우승, 남방장성배 한중대항전 준우승 등의 화려한 성적을 거둔 강창배 아마 7단이 수상했다. /오광복기자 kroh@

바둑 ‘태왕’ 정패 전자랜드배 격돌

4개의 신물을 차지하기 위해 담력과 연호개가 사투를 벌이는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처럼 바둑계도 백호·현무·청룡·주작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제5회 전자랜드배 대회가 프로기사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백호·현무·청룡·주작 리그로 나눠 치러지고, 각 리그의 강자들이 ‘태왕’의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것.

현무왕전에는 만 51세 이상, 백호왕전 만 26 이상~만 50세 이하, 청룡왕전 만 25세 이하, 주작왕전은 여성 리그다.

전자랜드배는 시드 4명, 리그별 8명 총 36명을 선발해 왕중왕전을 치른다. 경기는 각 10분 초읽기 40초 3회이며 상금은 우승 5천만원, 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오광복기자 kroh@

이창호-창하오, 인터넷서 한판 승부

영원한 국제 라이벌인 이창호 9단과 창하오 9단이 실명으로 인터넷 바둑을 둔다. 인터넷 바둑사이트 타이젠(www.tygen.com)은 11일 “이들이 오는 14일 사이버 대국실에서 만나 제5회 동양증권배 개막을 기념해 한·중 정상대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 이상을 세계대회에서 맞붙어 경쟁자를 넘어 국가 간의 장벽을 깨 우정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결은 우승상금 3천만원의 동양증권배 우승권배 개막 행사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제한 시간 30분 30초 3회이다.

국제약품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을 위한 '손바닥이 붉은 좋은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지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노화 방지
- 눈의 건조감과 안구 피로 완화
- 지방 과잉 축적 방지
- 피부 노화 방지
- 심혈관 질환 예방
- 운동 후 근육 회복
- 수면 개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yuten.com 080-022-2200